

# 가을 길목에서 '연극의 향연'



해외초청공연 무대를 장식하는 일본 팀 'kulkrī'의 '함석지붕의 플레밍' 컨셉샷(왼쪽)과 극단 도시락의 개막 초청공연 '하이타이'. <광주연극협회 제공>

평화와 인류 공영의 가치를 연극에 투영한 '광주국제평화연극제'가 올해로 20주년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5년 막을 올린 축제는 1회 '인간과 인권, 평화'부터 '더불어', '광주, 세계로 평화를 외치다', '인(人)과 간(間)' 등 주제에 공동체 정신을 담아왔다.

## 광주국제평화연극제 20~28일 해외초청공연·전국공모 선정팀 등 빛고을시민문화관 등서 8개 작품

그러던 어느 날 그는 5·18 당시 실종됐던 아들의 시신을 '광주교도소'에서 발굴했다는 전화를 받게 된다. 이후 광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텍사스 레인저스 등과 펼쳐가는 다양한 일화들을 조명한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각자가 추구하는 '정의'와 '혁명'에 대한 생각이 달라 갈등을 겪게 된다는 내용이 시놉시스에 담겨 있다.

23~26일에는 인공지능, 지역 등을 다룬 장막극 경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 네 편의 작품을 만나는 자리이며 극단 가변의 '집승의 시간'을 오는 23일 먼저 선보인다.

이어 극단 바람꽃과 시민의 합동 주제공연 '정의의 사람들'은 22일 무대에 오른다. 이 작품은 알베르 카뮈의 원작 '정의의 사람들'을 극화했으며 인간의 본성과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보편적인 주제 의식을 전한다.

1905년 모스크바, 혁명을 위해 5명의 테러리스트들이 모인다. 리더인 '안네크프'를 중심으로 세르게이 대공 암살을 모의하는 이들은 치열한 준비 과정을 거친다. 거사 당일 폭탄을 던지기로 한 '야네크'가 폭탄 투척에 실패하면서 테러는 실패로 돌아간다.

한종신 예술감독은 "연극제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만큼 다양한 시도, 연출을 접목하기 위해 눈의 중이"라며 "예산 삭감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시민들이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연극제 리뉴얼' 작업을 통해 모두가 어우러지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로힝야 여성들 상처와 회복에 관하여

'춤추고 싶은데...' 발간 기념 북토크...7일 독립서점 '소년의서'

미얀마는 수많은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연합국이다. 버마족이 정치, 군사 등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수민족들 중 로힝야족은 지난 1982년 시민권이 박탈되는 등 오랫동안 박해와 차별의 삶을 살았다.



이유경, 전술비가 참여했다.

책 발간을 기념하는 북 토크가 열려 눈길을 끈다.

(사)아디는 오는 7일 오후 2시 독립서점 소년의서에서 북토크를 펼친다. 이번 북토크는 '산티카나'가 품은 빛과 그림자, 삶과 죽음, 상처와 회복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북토크는 소년의 서 외에도 세계봉공재단,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파시를 출판사, 아시아여성네트워크, 등이 함께 한다.

임인자 소년의 서 대표는 "이번 북 토크는 로힝야 인식 개선 프로젝트로 기획된 의미있는 행사"라며 "2016년부터 로힝야와 함께 연대해온 사단법인 아디에서 부산, 춘천, 제주를 거쳐 광주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참가비 1만원. 문의는 소년의 서, (사)아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내 실력 따라 배우는 우리 춤 우리 가락

전남도립국악단, 13일까지 수강생 모집...가야금 등 5개 분야



국악 강좌 '우리가락 우리춤 배우기'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수강생들의 실력에 따라 초·중급반으로 나눠 우리 가락, 우리 춤을 배우는 국악 강좌.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조용안·국악단)이 국악 강좌 '우리가락 우리춤 배우기'에 참여할 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올해 마지막 기수이며 오는 13일까지 국악단 누리집 또는 방문 신청(선착순).

강의는 오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주 1회 90분간 국악단 연습실(남도소리유포럼 3층)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 분야는 가야금, 한국무용, 판소리, 대금, 장구 등 총 5개이며 화요일(오후 7시)은 초급반, 목요일은 중급반 수업이 열린다. (중급 1반 오후 5시부터, 중급 2반 오후 7시부터 진행)

가야금과 대금은 수강생이 개별 지참해야 한다. 총 10회 강의하며 남도회원, 풍류회원에게는 1만 원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국악단 조용안 예술감독은 "지난해 참가했던 수강생들이 재수강 의사를 보이는 등 '우리가락 우리춤 배우기' 수업의 반응이 좋은 편"이라며 "저렴한 강의로 전문 예술인에게 국악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도민들이 다양한 국악기와 장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남도립국악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수강료 10회 6만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국내 최장수 원탁시회 동인지 69호 나왔다

지난 67년 광주에서 결성된 '원탁시회'는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 문학 동인지다. '원탁'이라는 명칭은 1966년 10월 광주 관광호텔에서 원탁 토론회가 열린 것이 단초가 됐다. 이를 계기로 범대순 시인의 제안에 따라 1967년 1월 발기인 모임을 갖고 이 명칭을 채택했다.

제28회 한국해양문학상 공모전에서 시 '내 가시오'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원탁'은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수일 회원의 작품을 집중 조명한다. 또한 '잠'을 모티브로 한 동인들의 시를 광주 출신 신예 평론가 강나루씨의 비평과 함께 담았다.

올해는 '무등산 시인'이자 원탁시회 발기인으로 원탁시 초창기부터 활동을 펼쳤던 범대순 시인이 세상을 떠난 지 10주년이 되는 해다. 전년대 국문과 김영삼 박사가 '불타는 무등산과 죽음에 이르는 산행'을 주제로 시문을 실었다.

이밖에 회원 19명의 신작과 강대선 시인의 시집 '별들은 감나무에 오종중'과 조세핀 시인의 시집 '에스메랄다와 춤을'에 대한 유성호,김춘식 평론



가의 작품론도 볼 수 있다.

원탁시회는 최근 ACC디자인호텔연회장에서 69호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향후 문단 활동 등 동인 회원들의 작품 활동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1970년대 전국적 명성을 얻은 '원탁시'는 1980년대 제1차 문예진흥원 선정 최우수 동인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회원 21명의 시인이 광주 문단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